



# 제주비엔날레 반환점... 예술로 잇는 '표류'의 여정

### 본전시·협력전시에 지난달 31일까지 4만여명 발길 2월 16일까지 만나는 세계 작가들의 다양한 시선

지난해 11월 닷을 올려 83일간의 향해를 시작한 제4회 제주비엔날레가 여정의 절반을 지나 후반부로 접어들었다.

부침 속 명맥을 이어오는 가운데 새 도약의 돌파구를 모색하는 제주비엔날레가 도민 공감대 속 대중성과 새로운 이슈·담론 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도민과 함께한 미술축제'로 마무리될지 관심이 모인다.

5일 제주비엔날레 사무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4만4474명이 전시장을 찾았다.

제주도립미술관과 제주현대미술관 문화예술 공공수장고, 제주아트 플랫폼,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등 5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본전시 '아파기(阿波伎) 표류기: 물과 바람과 별의 길'에 관람객 2만7385명이 다녀갔고, 제주현대미술관에서 진행 중인 비엔날레 협력전시 '모네에서 앤디워홀까지:서양미술 400년, 명화로 읽

다' 특별전에는 1만7089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다. 비엔날레의 총감독을 맡고 있는 이종후 제주도립미술관장은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폐막하는 오는 2월 16일까지 총 관람객 수가 약 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조심스레 전망했다.

비엔날레 여정의 반환점을 앞둔 지난 3일엔 주요 참여작가 3팀과 함께 하는 프레스투어가 진행됐다. 이날엔 대만의 현대 사진가 쉐나오량, 한국화 작가 현덕식, 캐나다 미디어 아티스트 A.N팀(지하루+그라함 웨이크필드)이 참석해 '표류'를 주제로 한 작품의 창작 배경과 의미를 설명했다.

쉐나오량은 이번 제주비엔날레에 '드립팅'이라는 제목으로 총 7점의 사진을 출품했다.

'드립팅'은 계엄령과 민주화를 겪은 대만 사회를 가시적이고 복합적으로 보여주려는 시도다. 중국의 대만 수복 압박과 이를 바라보는 대만 사람들의 다양한 시각을 담고 있다.



제주현대미술관 문화예술 공공수장고에서 선보이고 있는 지하루와 그라함 웨이크필드 작가의 작품 '천 겹의 표류'.

제주 출신의 회화 작가 현덕식은 '유시도'를 선보이고 있다. '녹아 흐르는 섬'이라는 뜻의 이 작품은 '인간은 태어나서 성장하고, 결국에는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철학적 모티브를 바탕으로 한다. 무공(無孔)의 밤바다에 떠 있는 섬을 흑백으로 담아낸 작품은 잡티 하나 없이 깨끗한 검은 배경 속에서 얼음이 물로 녹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제주현대미술관 문화예술 공공수장고에서는 미디어 아티스트이자 연구자로 활동하는 팀 A.N의 몰입형 인터랙티브 설치작품 '천 겹의 표류'를 만나볼 수 있다.

움직임에 따라 그래픽 장면들이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이 작품은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이 만들어낸 천 겹의 풍경 속에서 빛과 색의 복잡한 층위가 교차하며 어우러지는 독특한 시각적 경험을 제공한다. 움직일 때마다 주변 그래픽은 물결치듯 변화하며, 이에 따라 관객은 마치 끊임없이 변모하는 세계 속에 표류하는 듯한 감각을 느낄 수 있어 관람객의 역할을 단순한 '감상자'에서 능동적인 '참여자'로 확장시킨다.

한편 이번 비엔날레에는 14개국 40팀, 88명의 작가가 참여하고 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 영화觀

### 소원을 말할 때

디즈니의 애니메이션 '위시'는 지난 해 1월 디즈니 100주년 기념작으로 선보인 작품이다. 이 작품을 1년이 지난 시점에 보게 되었다. 디즈니 특유의 섬세하고 화려한 색감과 뮤지컬 형식을 차용해 만들어진 신명나는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영화는 최근의 시국과 맞물려 이상한 공포를 느끼게 했다. 소원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마법의 왕국 로사스에 살고 있는 아사는 이 왕국을 만든 매그니피코 왕의 견습생이 되려는 소녀다. 수많은 백성들이 바친 소원을 수집품처럼 소유하고 있는 매그니피코 왕은 아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고 아사는 왕의 사유재산이 되어 있는 사람들의 소원을 되찾아 주기 위해 왕의 대립각에 서게 된다. 그리고 아사의 간절한 기도를 들은 하늘의 별이 지상으로 내려와 힘겨운 싸움을 시작한 아사를 돕게 된다.

'위시'는 누군가의 소원이 어떻게 빛을 발하고 빛이 바래는 지에 대해 여러가지 질문을 남긴 영화였다. 누군가가 나의 소원을 이루어 줄 수 있는가, 그런 절대적인 힘을 가진 이가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은 최근 시국과 맞물려 해석한 화면과 대비되는 씁쓸함을 느끼게 했다. 영화 속 매그니피코 왕이 알고 싶은 것은 사람들의 소원이 어떤 것인지, 그들이 왜 그런 소원을 품고 사는 지에 대한 것이 아니다. 왕은 더 많은 양의 소원들을 갖고 있는 것이 자신의 힘이라고 생각하는 이다. 또한 언젠가 그 소원들 중 극소량을 자신의 마법을 통해 이루어 줄 수 있다는 것으로 통치의 기반을 마련하는 이이기도 하다. 그는 타인의 소원이 가진 간절함에, 지극함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는 사람인 동시에 자신의 믿고 있는 권력의 가치를 위협하는 작은 불빛에는 심하게 요동치는 이이기도 하다.



영화 '위시'.

다. '위시'의 사람들은 왕이 만든 견고한 벽을 깨트리기 시작한다. 하늘에서 내려온 별의 빛이 그런 사람들을 돕는다. 왕의 창고에서 어둡게 변색되어 가는 소원들이 그 빛을 받아 다시 영동해갈 때 사람들은 소원이 '바칠 수 있는' 것이 아닌 '바꿀 수 없는' 것임을 알게 된다.

우리는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는 말이 품고 있는 희망의 표식을 내가 아닌 타인에게도 걸어줄 수 있다는 것을 이 힘든 시국에 열렬히 알아가고 있다. 포기 마음으로 창을 닫을 때에 들려오는 단단하고 우렁찬 목소리에 다시 세상을 향해 얼굴을 내밀게 된다. 영원히 어두울 것만 같은 밤에도 눈이 시리게 밝게 빛나는 빛에 의지해 감았던 눈을 다시 뜨고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 우리가 함께 소원을 말할 때 소원은 결코 바래지 않는다. 저 먼 하늘의 별들이 서로를 비추면서 더 오래 빛나듯 지상의 우리 또한 각자의 곁에서 서로를 빛나게 만들고 있으니 하늘도, 땅도 결코 오래 어두울 리 없다. 우리가 소원을 말할 때 만들어지는 화음이, 우리의 소원이 서로에게 가 닿는 감촉이 우리를 비추주고, 데워주고 있다. 그렇게 멈추지 않는 빛을 따라서 새로운 세계의 길이 열리고 있다.



진명현 독립영화 스튜디오 무브먼트 대표(전문가)

## 제주 작가들 수도권 진출·창작 역량 강화 지원

도, 서울 제주갤러리·경기도 레지던시 참여작가 모집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 작가들의 수도권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2025년도 서울 인사동 제주갤러리 대관과 수도권 레지던시 파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올해로 4년차를 맞는 이 사업은 제주 작가들의 더 넓은 미술시장 진입을 돕고 창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갤러리 참여작가 11명(팀)을 선발하기 위해 오는 17일까지 대관 공고를 통해 기획전을 제외한 개인(단체)전 참여작가의 신청을 받는다. 신청 자격은 미술분야에서 활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 제주 지역 작가를 우선 선발한다.

선정 작가에게는 대관료 면제와 함께 숙박비를 통해 작품 전시에 필요한 운송비 등 일부가 지원될 예정이다.

경기도 양주시 가나아트파크에서 진행되는 레지던시 사업은 4명의 입주작가를 선발한다. 지역작가 육성 및 예술 활동 지원을 위해 양

질의 작업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자는 매해 공모로 선정하고 있다.

선정 작가는 올 3월부터 입주 가능하며, 입주기간은 1년이다. 신청 자격, 선정절차, 지원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도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제주도는 외부 전문가로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참여작가를 최종 선정하고 2월 중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김양보 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제주작가들이 창작과 전시를 통해 작품세계를 널리 알리고, 수도권과 국제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제주 예술가들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꾸준히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오은지기자

### 승진

## 신한은행 부행장

**양군길**  
(제주중앙고 33회)

제주중앙고등학교 33회 양군길 동문의 자랑스러운 신한은행 부행장 승진을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영광과 전진을 기원합니다.

**신한은행 재직 제주중앙고등학교 동문 일동**

### 취임

##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연합회장

**최운철**  
(애월남성대장)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연합회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처가 일동**

### 취임

## 제주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강덕부**

제주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외사촌일동**

### 취임

## 한국통계학회 회장

**강기훈**  
한국의국어대학교 교수

한국통계학회 제30대 회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가족 일동**